愛國의 향기속에 꽃피는 報勳문화

제49주년 현충일 기념행사가 지난 6월6일 10시 포천시 군내면 청성공원 충혼탑에서 개최됐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6월 한달을 3단계로 나눠 추모의 기간(1-10일),감사의 기간(11-20일),화합과 단결의 기간(21-30일)으로 설정해서 추모 및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 현충일을 맞아 오기택 의정부보훈지청장과 이광호 재향군인회 포천시지부장, 남윤철 의정부보훈지청 보훈과장, 류인철 의정부보훈지청 관리과장, 백승필 의정부보훈통신원등의 원고를 게재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편집자주-

현충일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며

오기택
의정부보훈지청장

6월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위국헌신에 보답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 속에서 국가의 흥망과 민족의 자존을 가름하는 숱한 외침과 시련을 겪어야 했으나, 그 때마다 선열들의 불굴의 호국의지와 민족적 저력으로 분연히 일어나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6월 한달을 3단계로 나누어 '추모의 기간(6.1-10)' 감사의 기간(6.11-20)' ' 화합과 단결의 기간(6.21-30)'으로 설정해서 특색있는 추모 및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현충일 당일에는 오전 10시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추념식을 거행하고 대전국립묘지와 각 지방 현충탑과 충혼탑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지방 추념식이 거행된다. 감사의 기간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문·위로하고 포상하는 기간으로 각 지역별 음악제, 백일장, 글짓기 대회 등 각종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전개한다.

화합과 단결의 기간에는 6.25 기념행사와 이벤트 행사, 전적지와 국군장병 위로· 격려행사 등이 추진된다. 특히, 6일 현충일에는 각 가정에서 빠짐없이 조기를 게양,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경건한 하루가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이렇게 호국보훈의 달을 지정하여 엄숙한 국가적 의식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나라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공동체라는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이다.지금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각 분야에 걸쳐 자국의 이익을 위한 무한경쟁 속에 급변하고 있으며 영원한 우방이 없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세대나 계층, 지역의 벽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때 대한민국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들의 나라사랑 마음과 국난 극복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통합을 이루고, 온 국민이 하나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다.

나아가 국가유공자의 위국헌신 정신을 고귀한 삶의 가치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해야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전우여 고이 잠드소서

백승필
의정부 보훈통신원

6월 6일 현충일이 되면 나는 아이들과 함께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는다. 올해로 스물 두 번째 옛 전우들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전방에서의 생활은 경계근무 아니면 철책 보수작업이 전부였기에 저녁에 몰래 먹는 술은 정말로 빅이벤트중의 하나였다.

후배의 다정한 술한잔 하자는 한마디가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이야! 아침 식사후 우리는 일정에 따라 각자 정해진 위치로 출발하였다.

얼마후 우리는 훈련지점에 도착해 간단한 주의사항을 듣던중 한 전우의 실수로 길옆에 매설해 놓은 지뢰를 그만 밟고 말았다.

주변은 피바다로 변했고 전우들의 비명소리는 계곡을 뒤흔들었다. 1시간쯤 지난후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아침에 옆에 와 저녁에 술한잔 하자던 후배는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있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너무나 안타깝고 어이가 없었다. 나역시 많은 피를 흘려 정신을 잃고 말았다. 몇시간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서울에 있는 국군수도통합병원 침대위에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전우들이 걱정되어 군의관에게 물어보니 2명은 현장에서 2명은 이송중에 전사하였다 한다. 경상자 4명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3명은 나와 같이 수도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꺼이 젊음을 바친 4명의 전우들은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6월 6일 현충일이 되면 지금도 빠짐없이 가족과 함께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을 찾는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날이 바로 현충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자. 경건한 마음을 갖고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모두 각자가 행해야 할 사명을 새롭게 하고 국민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6.25 전쟁 제 54주년을 맞이하면서!

이광호
포천재향군인희 회장

"과거를 잊는 민족에게는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54주년이 되는 해이다. 참으로 긴 세월이 흘렀다. "평화는 평화를 갈구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6.25 전쟁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것이다. 이는 평상시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에서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교훈으로 삼아 나가야 할 것이다.

3년의 한국전쟁에서 350만 여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쳤다. 한국전쟁은 막대한 민간 피해를 야기한 처참한 전쟁이었다. 또한 한국군 40여만 명과 북한군 50여만 명이 사상하였으며, 당시 우리 민족의 20%에 가까운 인명이 한국전쟁에서 죽거나 다쳤고, 더욱이 유엔군 16만 명과 중국군 90만 명이 희생되었다. 우리나라에는 70만 명의 참전용사가 생존해 있다. 그 중 6.25전쟁 참전용사는 대부분 일흔이 넘었다. 국가는 전쟁이 끝난 지 40년이 지난 1993년에야 참전군인 지원법을 만들어 이 법에 근거해서 참전용사들이 월 6만5천원의 수당을 받는다. 그것도 65세가 넘어야 된다.

참전용사들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전쟁에 뛰어들었겠는가, 오로지 조국을 구하겠다는 구국일념으로 참가한 것이 아닌가? 처참한 전쟁 끝에 너무나도 많은 국민이 피의 댓가를 치르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젊은이들과 함께 온 국민들이 합심하여 피를 토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켰다.

대한민국이 살아남지 못하였다면 오늘날 세계첨단산업을 이끄는 활기찬 시장경제와 세계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민주주의 나라는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반세기에 4년이 더 지난 현재, 우리의 현실은 대한민국을 피로써 지킨 이들에 대한 존경보다는 학문적으로 한 물간 수정주의적 시각이 판을 친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상당수가 한국전쟁이 북한의 침략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다. 이는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조차 한국전쟁의 참모습이 심각히 왜곡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국가 안보는 국가 공동체 유지를 위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점에서 군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전쟁 억제와 평화 추구는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국군이 그 소명을 다하고 우리 650만 재향군인이 그 보좌역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국가유공자께 존경과 감사를!

남윤철
의정부보훈지청 보훈과장

6월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54주년이 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해마다 호국보훈의 달이 돌아오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이라는 말을 대할 때마다 생소함을 느끼는 듯하다.

하지만 올해 초 우리는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았다.

1천만명이 넘는 경이적인 관람 기록을 가진 이 영화를 보며 얼마나 가슴 애틋해 하며 눈물을 흘리며 영화속의 가상현실을 안타까워 했는가.

그렇지만 영화보다 더 진하고 가슴아픈 현실의 6·25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바로 국가유공자들이시고 그때의 상처로 지금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계시고 있다.

그리고 이 분들을 남편으로, 자식으로, 또는 부모로서 전쟁에서 잃으신 분들이 유가족분들이시다.

전쟁이 발발한지 어언 50여 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전쟁을 체험한 세대는 전 국민의 20% 정도이고 나머지 80%이상이 전쟁 미체험세대인 만큼 이 유월, 우리는 영화의 장면들을 회상하면서 6·25전쟁과 국가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한달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숭고한 위국, 희생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10일을 '추모의 기간', 11~20일을 '감사의 기간', 21~30일을 '화합과 단결의 기간'으로 정해 기간별 성격에 맞게 추모행사와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호국보훈의 달에는 가족들끼리 내 이웃에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로부터 영화보다 진한 전쟁의 실상을 들어보고 각가지 추모행사와 문화행사에 참여하면서 본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으시고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정신을 되새기면서 우리 주변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국가유공자께 존경과 감사를 나타내는 보훈정신이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잡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북교류·협력과 국가안보

류인철
의정부보훈지청 관리과장

역사적인 6. 15 남북공동선언이 지난지 벌써 4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햇볕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있었으나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남북통일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한것 같다.「참여정부」도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켜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경제분야 회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추진, 남한기업의 개성공단개발·입주 추진, 이산가족상봉과 이분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금강산면회소 설치합의,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길이 열렸으며, 또한 최근에는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전쟁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남북 정상급 회담 개최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의 착실한 성과는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그리고 튼튼한 국가안보의 토대 위에서만 오직 가능하며 평화유지와 전쟁억지는 힘의 우위 즉 강력한 국방력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있는 주한미군의 감축문제는 휴전이후 한반도에서 평화유지와 전쟁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온 주한미군의 기능을 감안할때 이는 국가안보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사회안전망 구축, 통일준비등 추진 하여야할 과제가 산적한데 주한미군의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방비의 추가부담은 물론 국민들의 안보의식 약화가 매우 걱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추진과 아울러 긴밀한 대미협력을 통한 합리적이고 확고한 안보대책을 도출하여야 하며 국민은 이러한 바탕위에서 결정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단합된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보상을 통하여 국가안보의 토대를 강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수호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이분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포천신문은 전국 最高의 지역신문

포천신문

인터넷 www.ipcs21.com

포천신문은 16면을 10일마다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경기북부지역의 최다의 구독자를 확보한 신문으로서 특히 일반주민, 상인, 서민, 농민, 기업인 및 전문지식인의 의견을 대변하는 전국 최고의 지역신문입니다. 아울러 포천신문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www.ipcs21.com)에 방문하시면 우리지역 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하고 생동감 넘치는 포천신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포천신문 발행인을 비롯하여 전 임직원은 비리와 부정부패 및 금품수수를 단호히 배척하고 오로지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과 눈 그리고 귀가 되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 행 목 적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사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의 시정(市政)을 해설 · 소개하고 시내(市內)의 각종 행사와 유명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 포천신문 올림 -

2000년 10월 25일 포천신문 제140호 발행(예정간회)
2000년 11월 06일 포천신문 제141호 발행
2000년 11월 20일 포천신문 제142호 발행
2000년 11월 30일 포천신문 제143호 발행
2000년 12월 11일 포천신문 제144호 발행
2000년 12월 20일 포천신문 제145호 발행
2001년 01월 01일 포천신문 제146호 발행
2001년 01월 10일 포천신문 제147호 발행
2001년 01월 20일 포천신문 제148호 발행
2001년 01월 30일 포천신문 제149호 발행
2001년 02월 10일 포천신문 제150호 발행
2001년 02월 20일 포천신문 제151호 발행
2001년 02월 28일 포천신문 제152호 발행
2001년 03월 10일 포천신문 제153호 발행
2001년 03월 20일 포천신문 제154호 발행
2001년 03월 30일 포천신문 제155호 발행
2001년 04월 10일 포천신문 제156호 발행
2001년 04월 20일 포천신문 제157호 발행
2001년 04월 30일 포천신문 제158호 발행
2001년 05월 10일 포천신문 제159호 발행
2001년 05월 19일 포천신문 제160호 발행
2001년 05월 30일 포천신문 제161호 발행
2001년 06월 09일 포천신문 제162호 발행
2001년 06월 20일 포천신문 제163호 발행
2001년 06월 30일 포천신문 제164호 발행
2001년 07월 10일 포천신문 제165호 발행
2001년 07월 20일 포천신문 제166호 발행
2001년 07월 30일 포천신문 제167호 발행
2001년 08월 10일 포천신문 제168호 발행
2001년 08월 20일 포천신문 제169호 발행
2001년 08월 30일 포천신문 제170호 발행
2001년 09월 10일 포천신문 제171호 발행
2001년 09월 20일 포천신문 제172호 발행
2001년 09월 29일 포천신문 제173호 발행
2001년 10월 10일 포천신문 제174호 발행
2001년 10월 20일 포천신문 제175호 발행
2001년 10월 30일 포천신문 제176호 발행
2001년 11월 10일 포천신문 제177호 발행
2001년 11월 20일 포천신문 제178호 발행
2001년 11월 30일 포천신문 제179호 발행
2001년 12월 10일 포천신문 제180호 발행
2001년 12월 20일 포천신문 제181호 발행
2002년 01월 01일 포천신문 제182호 발행
2002년 01월 10일 포천신문 제183호 발행
2002년 01월 19일 포천신문 제184호 발행
2002년 01월 30일 포천신문 제185호 발행
2002년 02월 09일 포천신문 제186호 발행
2002년 02월 20일 포천신문 제187호 발행
2002년 02월 28일 포천신문 제188호 발행
2002년 03월 09일 포천신문 제189호 발행
2002년 03월 20일 포천신문 제190호 발행
2002년 03월 30일 포천신문 제191호 발행
2002년 04월 10일 포천신문 제192호 발행
2002년 04월 20일 포천신문 제193호 발행
2002년 04월 30일 포천신문 제194호 발행
2002년 05월 10일 포천신문 제195호 발행
2002년 05월 18일 포천신문 제196호 발행
2002년 05월 25일 포천신문 제197호 발행
2002년 06월 07일 포천신문 제198호 발행
2002년 06월 15일 포천신문 제199호 발행
2002년 06월 20일 포천신문 제200호 발행
2002년 07월 02일 포천신문 제201호 발행
2002년 07월 10일 포천신문 제202호 발행
2002년 07월 20일 포천신문 제203호 발행
2002년 07월 30일 포천신문 제204호 발행
2002년 08월 10일 포천신문 제205호 발행
2002년 08월 20일 포천신문 제206호 발행
2002년 08월 30일 포천신문 제207호 발행
2002년 09월 10일 포천신문 제208호 발행
2002년 09월 18일 포천신문 제209호 발행
2002년 09월 30일 포천신문 제210호 발행
2002년 10월 10일 포천신문 제211호 발행
2002년 10월 19일 포천신문 제212호 발행
2002년 10월 30일 포천신문 제213호 발행
2002년 11월 09일 포천신문 제214호 발행
2002년 11월 20일 포천신문 제215호 발행
2002년 11월 30일 포천신문 제216호 발행
2002년 12월 10일 포천신문 제217호 발행
2002년 12월 20일 포천신문 제218호 발행
2002년 12월 30일 포천신문 제219호 발행
2003년 01월 10일 포천신문 제220호 발행
2003년 01월 20일 포천신문 제221호 발행
2003년 01월 30일 포천신문 제222호 발행
2003년 02월 10일 포천신문 제223호 발행
2003년 02월 20일 포천신문 제224호 발행
2003년 02월 28일 포천신문 제225호 발행
2003년 03월 10일 포천신문 제226호 발행
2003년 03월 20일 포천신문 제227호 발행
2003년 03월 31일 포천신문 제228호 발행
2003년 04월 10일 포천신문 제229호 발행
2003년 04월 19일 포천신문 제230호 발행
2003년 04월 30일 포천신문 제231호 발행
2003년 05월 10일 포천신문 제232호 발행
2003년 05월 20일 포천신문 제233호 발행
2003년 05월 31일 포천신문 제234호 발행
2003년 06월 10일 포천신문 제235호 발행
2003년 06월 20일 포천신문 제236호 발행
2003년 06월 30일 포천신문 제237호 발행
2003년 07월 10일 포천신문 제238호 발행
2003년 07월 19일 포천신문 제239호 발행
2003년 07월 31일 포천신문 제240호 발행
2003년 08월 09일 포천신문 제241호 발행
2003년 08월 20일 포천신문 제242호 발행
2003년 08월 30일 포천신문 제243호 발행
2003년 09월 09일 포천신문 제244호 발행
2003년 09월 20일 포천신문 제245호 발행
2003년 09월 30일 포천신문 제246호 발행
2003년 10월 11일 포천신문 제247호 발행
2003년 10월 20일 포천신문 제248호 발행
2003년 10월 31일 포천신문 제249호 발행
2003년 11월 10일 포천신문 제250호 발행
2003년 11월 20일 포천신문 제251호 발행
2003년 11월 29일 포천신문 제252호 발행
2003년 12월 10일 포천신문 제253호 발행
2003년 12월 20일 포천신문 제254호 발행
2004년 01월 01일 포천신문 제255호 발행
2004년 01월 10일 포천신문 제256호 발행
2004년 01월 20일 포천신문 제257호 발행
2004년 01월 31일 포천신문 제258호 발행
2004년 02월 10일 포천신문 제259호 발행
2004년 02월 20일 포천신문 제260호 발행
2004년 02월 28일 포천신문 제261호 발행
2004년 03월 10일 포천신문 제262호 발행
2004년 03월 20일 포천신문 제263호 발행
2004년 03월 31일 포천신문 제264호 발행
2004년 04월 10일 포천신문 제265호 발행
2004년 04월 20일 포천신문 제266호 발행
2004년 04월 30일 포천신문 제267호 발행
2004년 05월 10일 포천신문 제268호 발행
2004년 05월 20일 포천신문 제269호 발행
2004년 05월 31일 포천신문 제270호 발행
2004년 06월 10일 포천신문 제271호 발행
2004년 06월 21일 포천신문 제272호 발행예정

발 행 인 : 최 호 열
포 천 신 문 : 031-542-1506~7
편 집 국 : 031-542-9776
팩 스 : 031-541-9117
본 사 :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B/D 1F
입 금 계 좌 : 농협(585-02-172934 · 예금주 포천신문)